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연예인 팬클럽 회원, '악플러 고소 모금비용' 착복 보도, 정정보도로 조정성립

A신문사는 연예인 팬클럽의 잘못된 '조공' 문화를 보도하면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예인과 팬을 비방하던 악플러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모금하던 한 팬이 모금비용을 착복해 잠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모금을 담당했던 신청인들은 모금한 돈은 모두 소송 비용에 사용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해당 중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여러 자료와 증빙 자료를 근거로 볼 때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보도하라고 조정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졌다.

| 사생활 침해 사례 | 사실혼 관계가 아닌 부부를 진짜 부부라고 방영한 방송사에 정정보도와 200만원 배상 결정

B방송사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4쌍의 부부로 출연한 사람들 중에 가짜 부부를 찾는 방송을 했다. 신청인은 방송에 '진짜 부부'라고 소개된 한 쌍 중 '결혼 45년차 부부'라고 소개된 사람들은 내연의 관계이고 신청인이 법률적으로 배우자라며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여러 언론사에서 이미 부부로 소개된 바 있어 출연 요청했을 뿐 법률혼 관계인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중재부는 양 당사자간의 사실 관계에 다툼이 없고 방송사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 정정보도와 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직권으로 결정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현철 _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이금림씨 인터뷰 내용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특히 대부분 국내 드라마가 시청률을 의식해 진정성과 작품성을 상실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송평론가 상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드라마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드라마 시장과 함께 더욱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한류문화의 꾸준한 성장과 안정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콘텐츠산업과 방송작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단막극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인터뷰에서 언급되었지만, 작가들이 드라마 대본을 쓸 때 일어날 수 있는 명예훼손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방송작가협회와 꾸준한 교류와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은숙 _ 9월호 <초상권 동의범위와 기각결정에 대한 법적 쟁점>을 읽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예비법조인을 상대로 모의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나름대로 급속히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대비해 법적소양을 확대하고 ADR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달라는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법조인들이 법률과 과거의 판례에만 의존하기에는 시대적 상황과 여건이 너무나 크게 달라졌기에 현실적인 부분과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또한 피해자의 심정과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 사안에 대해 모의토론회를 열어 예비법조인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김규연 _ 9월호 인문학 산책 <삶은 기억과의 전쟁 혹은 기억을 위한 투쟁이다>를 읽고 성리학의 대가인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한 학문적 업적과 고상한 인격을 다시 되새겨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지만 죽음을 당하더라도 인물 됨됨이와 학문 발자취의 업적은 길이 두고 두고 남을 것이며 결국 기억을 통해 살아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만큼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살아 있을 당대 뿐 아니라 사후에도 오랫동안 평가 받고 후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살아있는 동안 늘 올바르고 건전하며 도덕적이고 품격있는 자세가 요망됩니다. 한 평생 학문을 향한 그의 열정과 노력, 소탈함이 돋보이는 글이었습니다.